

김현석호 “2025년 K리그2 우승하겠다”

전남드래곤즈 선수단 구성 박차 ‘브라질 공격수’ 레안드로 ‘전천후 미드필더’ 박태용 대전 노동진·성남 장효준 영입

새로 출장한 전남드래곤즈의 ‘김현석호’가 선수단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리그에서 검증된 호난에 이어 레안드로를 영입한 전남은 ‘전천후 미드필더’ 박태용과의 재계약으로 허리를 지켰다. 또 수비라인 강화를 위해 노동진과 장효준을 불러들였다.

전남은 K리그에서 활약해 온 브라질 공격수 레안드로(30)로 화력 강화에 나섰다. 앞서 서울이랜드에서 활약했던 호난을 영입한 전남은 역시 같은 팀에서 뛰었던 레안드로까지 전력에 합류시켰다.

176cm, 75kg 체격의 레안드로는 브라질 연령별 대표를 지냈으며 빠른 스피드와 날카로운 움직임이 돋보인다.

2014년 브라질 SC 인테르나시오나우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레안드로는 이후 포르투갈, 조지아, 이스라엘, 몰도바 리그를 거쳐 2020년 서울 이랜드를 통해 K리그에 입성했다.

서울이랜드에서 왼쪽 윙포워드로 활약한 그는 2시즌 동안 61경기 13득점 12도움을 기록하며 주목 받았다.

2022년 대전하나시티즌으로 이적한 레안드로는 35경기에 나와 9득점 5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K리

그1 승격을 이끌었다.

이후 대전 유니폼을 입고 K리그1에서 뛰던 그는 2시즌 동안 39경기 4득점 9도움을 올렸지만, 지난해 여름 부상으로 대전 동행을 마무리했다.

재활을 통해 컨디션을 회복한 그는 K리그 구단들의 많은 러브콜을 받은 끝에 전남으로 행선지를 정하면서, 브라질에서 함께했던 발디비아와 다시 동료로 뛰게 됐다.

전남은 이번 영입을 통해 ‘에이스’ 발디비아, ‘괴물 스트라이커’ 호난 그리고 ‘크랙’ 레안드로까지 브라질리언 삼각편대를 구성하게 됐다.

전남은 ‘유스 출신’의 미드필더 박태용(21)과의 재계약도 이뤘다.

여수 출신의 박태용은 순천 중앙초를 거쳐 전남 U15와 U18에서 프로 선수의 꿈을 키웠다. 광운대에 재학 중이던 2023시즌 전남에 입단한 그는 프로 첫해 10경기에 나와 2득점 1도움을 기록했다.

프로 2년 차인 지난 시즌에는 33경기 3득점 5도움의 성적표를 작성하며 주전급 미드필더로 자리했다.

탄탄한 기본기와 센스를 바탕으로 2선과 3선을 오가며 공격을 연결하고 공간을 창출하는 박태용은 중요한 순간에는 골 결정력도 보여주면서 ‘전천후’ 미드필더로 평가받고 있다.

2년 재계약을 한 박태용은 “전남에서 내 가치를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다. 2024시즌 승격이라는 목표를 눈앞에서 놓쳤다. 2025년 목표는 PO 진출이 아닌 우승을 통한 직접 승격이다”며 “개인적으로는 두 자릿수 포인트를 올리고 싶다. 많은 포인트를 올리다 보면, 팀 성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팬들



김현석 감독 체제로 새출발하는 전남드래곤즈가 승격을 위해 선수단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계 방향으로 재계약을 한 미드필더 박태용과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 레안드로, 울산 유스 출신의 수비수 장효준.

에게 많은 기쁨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남은 뒷방 강화를 위해 자유계약으로 대전 노동진(26)과 성남FC 장효준(25)을 영입했다.

185cm, 78kg 체격의 노동진은 빠른 스피드가 돋보이는 중앙수비수다. 마산공고를 졸업한 그는 예원예술대와 동의대를 거쳐 부산교통공사(2022), FC



전남드래곤즈 제공

목포(2023) 등 K3 무대에서 활약했다.

지난해 대전에 입단해 K리그 무대에 도전한 그는 B팀에서 수비진의 중심으로서 활약했고, K리그 1에서도 3경기에 출전했다.

울산HD 유스 출신인 장효준은 174cm, 67kg 체격의 풀백으로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하는 멀티 플레이어 자원이다.

동국대를 거쳐 2022년 성남FC에 입단한 그는

K리그1 17경기에 출전했다. 장효준은 2023시즌 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지난 시즌 주전으로 도약하면서 프로 데뷔골도 장식했다. 데뷔골 이후 다음 경기에서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당한 그는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바탕으로 전남에서 부활을 노린다.

/김여울 기자 wool@



SON의 등지는?

EPL 이적시장 오픈... 토트넘과 올 여름 계약 종료 손흥민에 ‘시선’ “만 33세” 장기계약 어렵고 ‘1년 연장’ 관측 속 토트넘은 ‘미적지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겨울 이적시장이 현지시간 1일부터 열리면서 올 여름 토트넘과 계약이 끝나는 ‘캡틴’ 손흥민(32)의 ‘계약 연장’ 여부를 놓고 팬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2015-2016시즌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은 이번 시즌까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무대에서 10번째 시즌을 맞이했다.

이미 ‘월드 클래스 공격수’ 반열에 오른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다양한 기록을 남겼다.

2021-2022시즌 정규리그에서 23골을 터트리며 EPL 공동 득점왕을 차지했던 손흥민은 2016-2017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무려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며 토트넘의 ‘레전드’ 자리를 예약했다.

지난달 16일 치러진 EPL 16라운드에서는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1골 2도움을 작성, 토트넘 입단 이후 EPL 무대에서 68개의 도움을 쌓아 ‘토트넘 역대 EPL 최다 도움 선수’ 1위에 오르는 대기록을

세웠다.

손흥민은 토트넘 입단 이후 지금까지 공식전 430경기를 뛰면서 무려 169골을 넣어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15년 8월 레버쿠젠(독일)을 떠나 2200만파운드(약 393억원)의 이적료로 토트넘과 5년 계약을 맺었던 손흥민은 2018년 7월 재계약을 통해 2023년까지 계약 기간을 늘렸고 2021년 7월 두 번째 재계약을 하면서 2025년 여름까지 뒀다.

이 때문에 팬들과 언론들은 지난해 여름부터 손흥민의 재계약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무엇보다 2025년 7월 33살에 접어드는 손흥민의 나이가 장기 재계약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고, 지난해 여름부터는 재계약 대신 토트넘이 ‘1년 계약 연장 옵션’만 가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줄지어 쏟아졌다.

하지만 팬들과 언론의 높은 관심과 달리 토트넘의 움직임은 미적지근하다.

손흥민 역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언급만 내놨을 뿐이다.

해의 언론들은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 만료가 1년을 남긴 순간부터 손흥민의 ‘차기 동지’로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상 스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페네르바체, 갈라타사라이(이상 튀르키예) 등을 언급한 상태다.

EPL 이적시장 개장과 함께 손흥민을 둘러싼 해외 매체들의 이적 전망도 다양하게 도출되고 있다. 손흥민은 올 여름 계약이 끝나게 돼 EPL 구단은 물론 다른 해외리그 팀들과도 협상할 수 있다.

토트넘으로선 올해 33살로 접어드는 손흥민과 장기계약을 하는 대신 1년 연장 계약을 발동한 뒤 거액의 이적료를 받고 이적시키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게 해외 매체들의 분석이다.

EPL과 더불어 프랑스 리그앙과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도 1월 겨울 이적시장이 열린 가운데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와 이탈리아 세리에A는 2일 오픈됐고, 대부분 현지시간 2월 3일에 문을 닫는다.

한 달에 걸친 겨울 이적시장에 손흥민과 토트넘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광주FC, 최경록과 재계약

해외파 미드필더 최경록(29-사진)이 올 시즌에도 ‘정효봉’ 중심에 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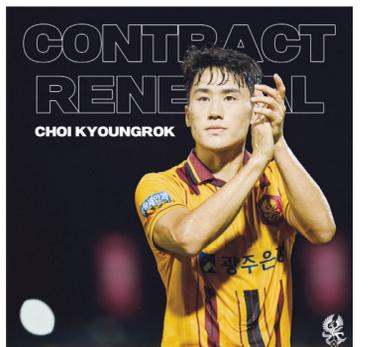
광주FC가 2일 중원의 핵심 최경록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풍성고 출신의 최경록은 아주대 중퇴 후 2014년 독일 분데스리가2 FC장크트파울리(분데스리가2)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뒤 독일에서 10년간 활약했다.

아주대 재학시절 이정호 감독과 연을 맺은 최경록은 지난 시즌 광주 유니폼을 입고 스승과 재회했고, K리그 첫해 34경기에 나와 3골 2도움을 기록했다.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는 최경록은 적재적소에 패스를 넣으면서 공격을 이끌었다. 베테랑으로 젊은 선수들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으면서 그라운드 안팎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경록은 “K리그 무대에서의 첫 팀인 광주와 동행을 이어갈 수 있어 기쁘다”며 “지난 시즌 팬



들이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는데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여 경기력으로 보답하겠다”고 재계약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김도영 ‘2024 스포츠스타’ 2위

빅데이터 분석

‘축구 대표팀 캡틴’ 손흥민과 KBO의 ‘슈퍼스타’ 김도영이 ‘K-브랜드 지수’ 2024년 올해의 스포츠스타로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지난 2024년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 30억 9063만 2850건을 분석한 결과, 손흥민(축구·토트넘 핫스파FC)과 김도영(야구·KIA타이거즈)이 올해의 스포츠스타 부문 1·2위로 선정됐다.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포털 사이트 검색량 전 종목 상위 30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2024년 프로 3년 차를 맞은 김도영은 KBO 사상 첫 월간 10-10, 최연소 30-30 등을 달성하면서 MVP와 골든글러브 등을 수상하는 등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손흥민과 김도영에 이어 3위 구자욱(야구·삼성 라이온즈), 4위 안세영(배드민턴·삼성생명), 5위 김우진(양궁·청주시청), 6위 신유빈

1위 손흥민	2위 김도영	3위 구자욱	4위 안세영	5위 김우진	6위 신유빈
7위 이강인	8위 김연경	9위 임시현	10위 양효진		

(탁구·대한항공), 7위 이강인(축구·파리 생제르맹FC), 8위 김연경(배구·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9위 임시현(양궁·한국체대), 10위 양효진(배구·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등이 TOP10의 영예를 안았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